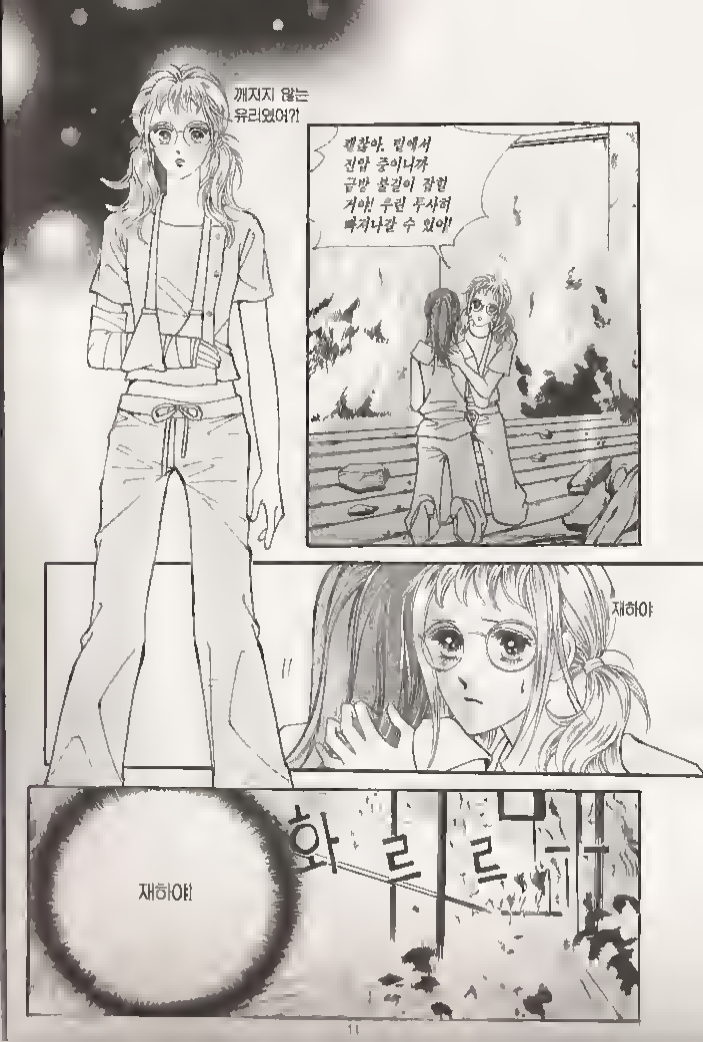
앗, 안돼!
꺄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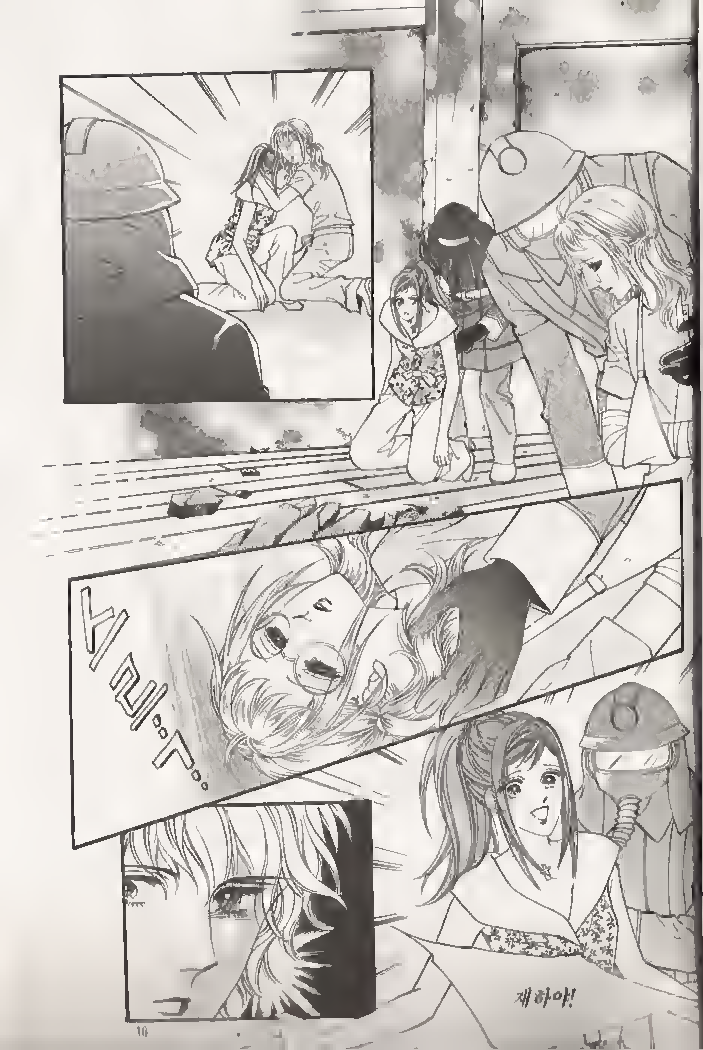
휘린아!
핸드백 얼고 코와 입부터 닥아! 잠깐 비릴 공기는 있으니까!

분쪽은 안돼!
완전히 잠겨 있어.
루도쪽도 본길에
싸여 위험해!
퍽
꺄 어 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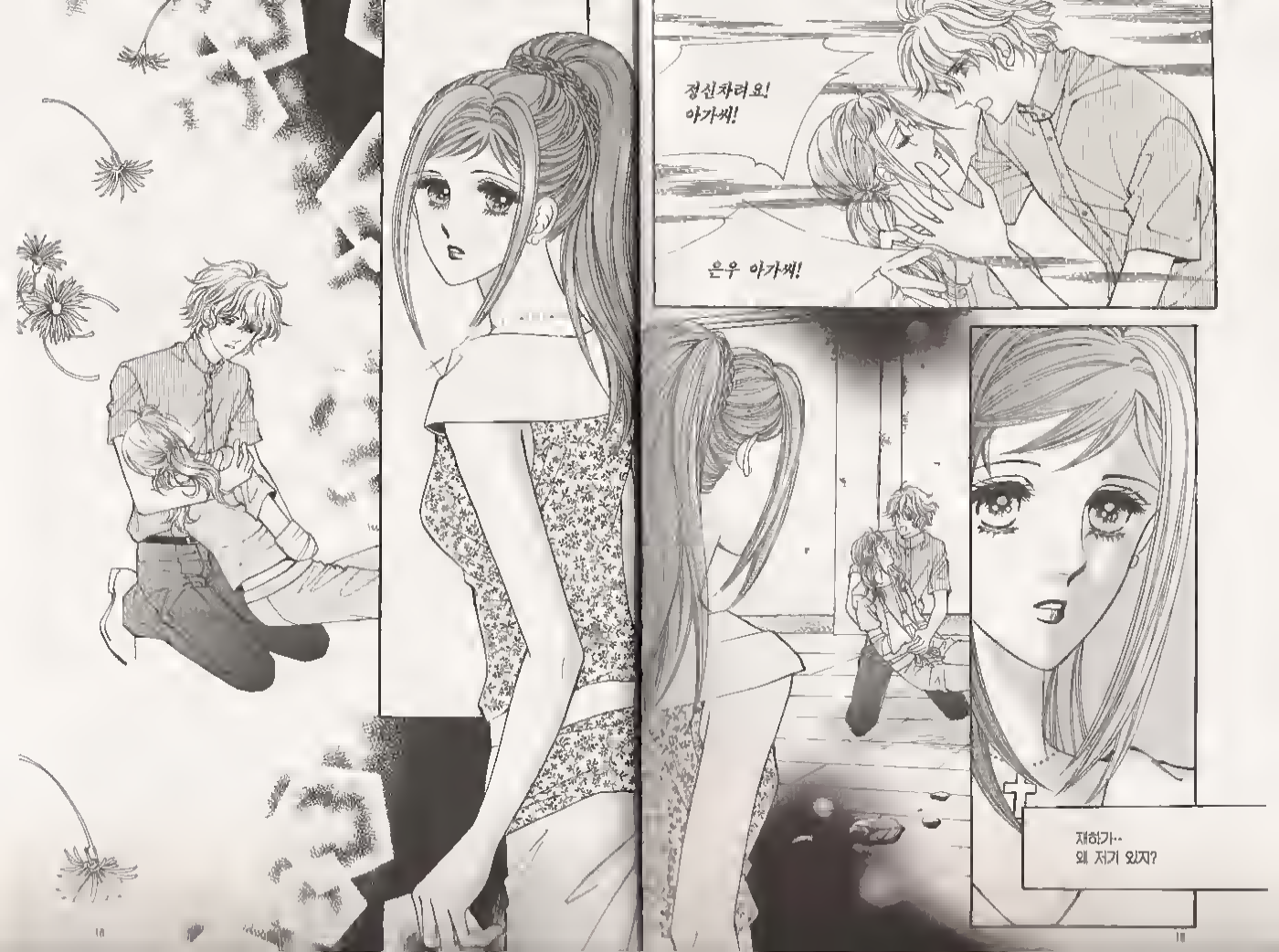

깨지지 않는
유리였어?!
괜찮아. 밑에서
진압 중이니까
급방 본길이 잠힐
거야! 우린 두사허
빠져나갈 수 있어!
재하야
재하야!
화 르 르 르

카논 대장.
저건 뭐야? 미친놈이 또 있네!
불 끄기도 바쁜데 왜 이래? 밖에서 저런 거 하나 못 막아?
어서 나가! 죽으려고 환장했어?

타앗
거 거 직 ㅇㅇ
쳐 ㅇ ㅇㅇ
이층 진입!
이 망이야! 두 사람이 보여!
둘 다 무사한 거 같아!
꽈 아 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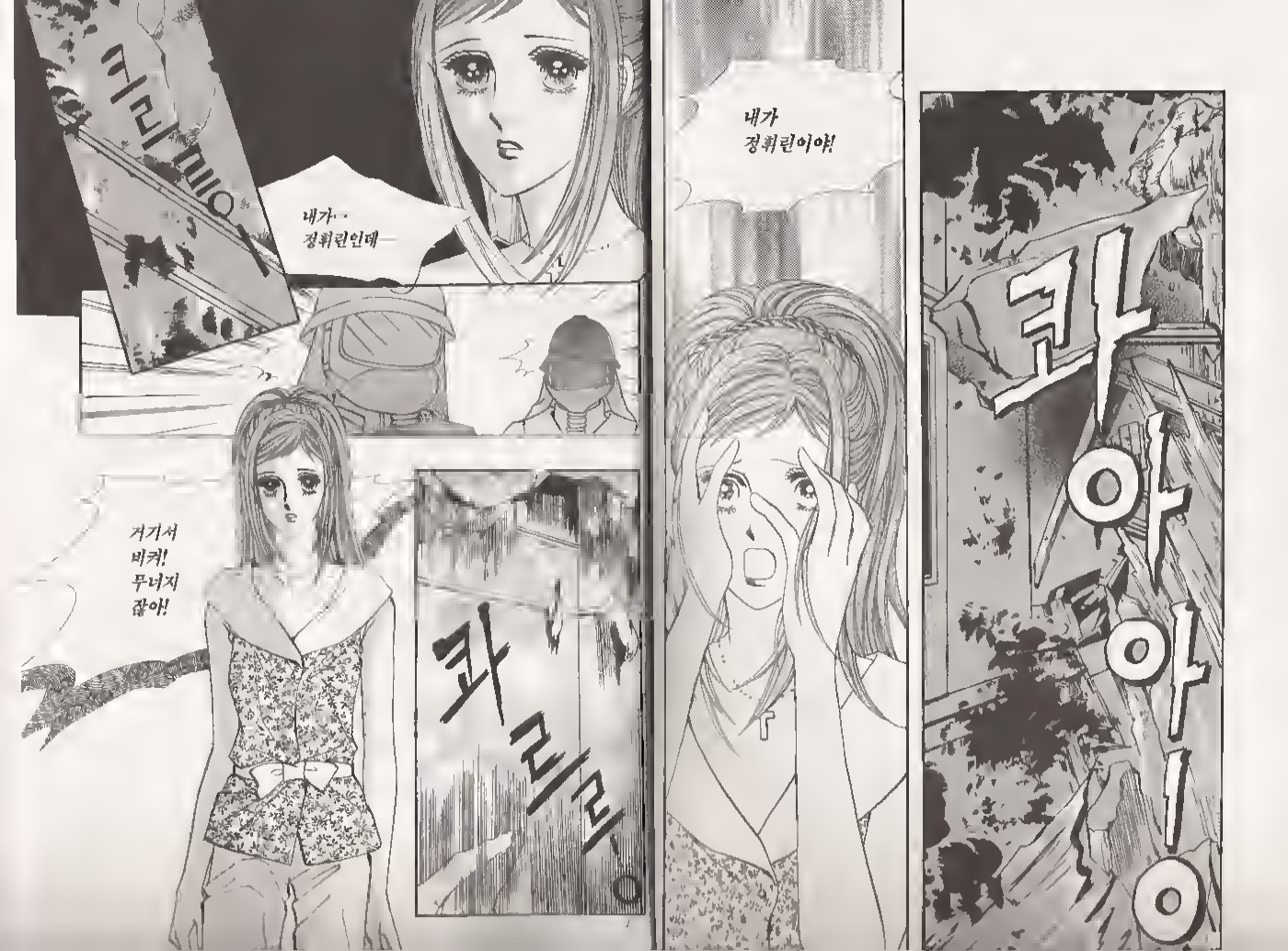

재하야!

아가씨!
스윽...


정신차려요!
아가씨!
은우 아가씨!
재하가..
왜 저기 있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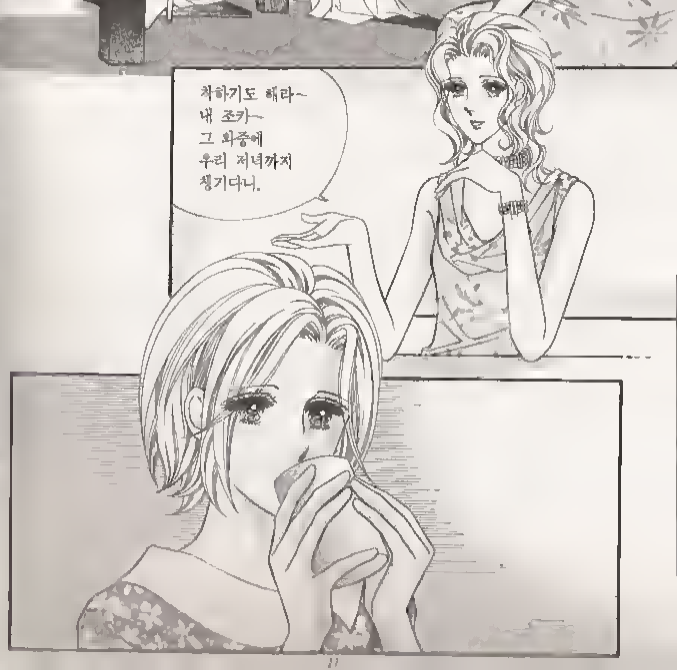
이 바보같은-!
오늘만 버티면
모두 끝인데!
그런데 왜-
재하기, 왜
다른 여자를
안고 있지?
왜 그런
얼굴이야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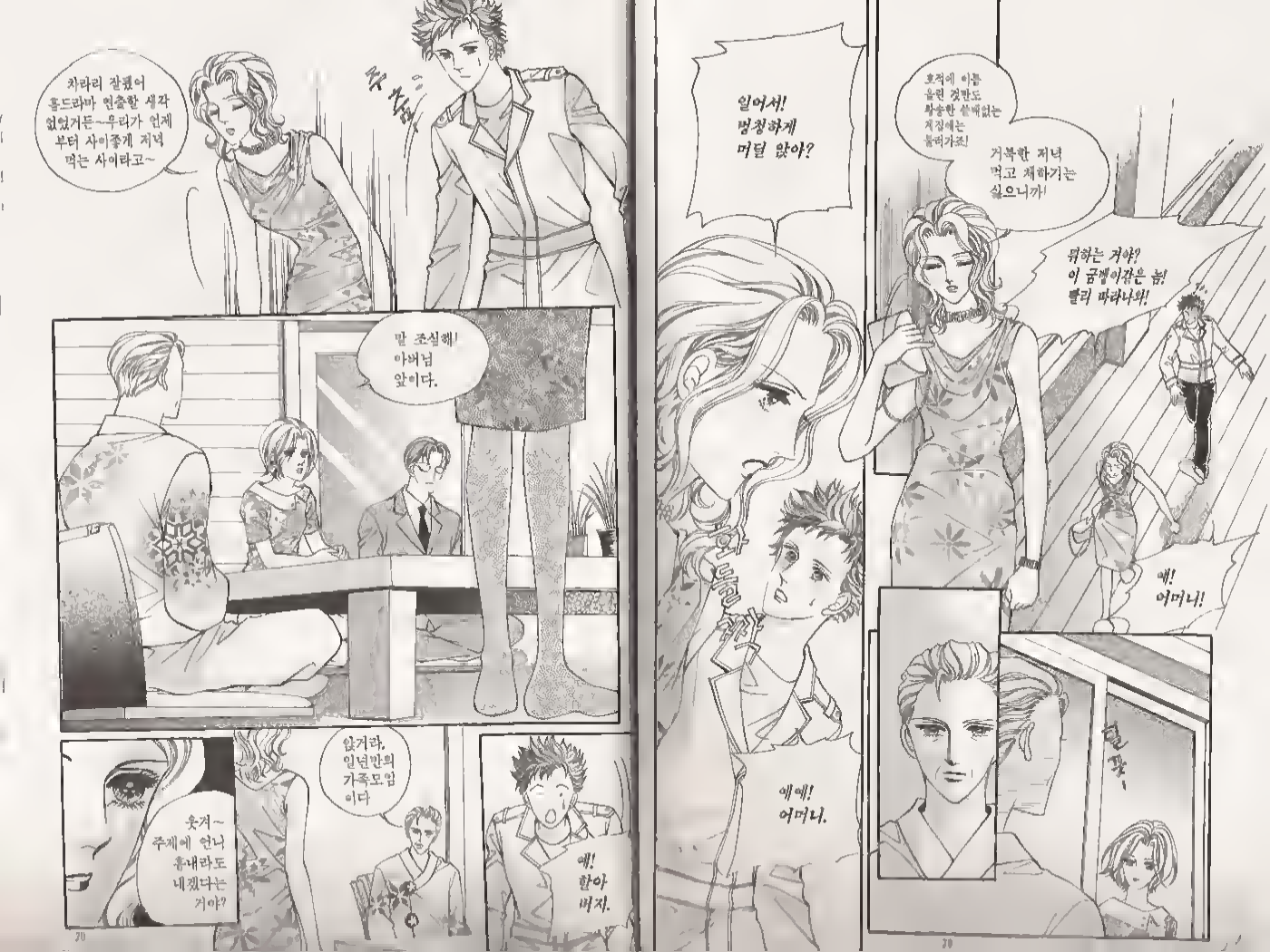
거짓말을 할 때도
진실 어린 미소를
보여주던 너였에
협박할 때도 녹아들 듯
달콤한 미소를 보이던
너잖아!
왜 너답지 않게
미안하다는 얼굴이지?


꽈아아아!
내가
정휘린이야!
내가…
정휘린인데—
거기서
비켜!
무너지
잖아!
콰르르
미니미이

아가씨께선
무사하시다고
합니다

병원에서 치료받은
후 돌아오시겠다고
신경 쓰지 말고
저녁만찬 즐기라는
전언이셨습니다


착하기도 해라~
내 조카~
그 와중에
우리 저녁까지
챙기다니.


일어서! 멍청하게 머털 앉아?
호적에 이름 올린 것만도 황송한 분際없는 지집애는 돌더가조!
거북한 지녁 먹고 재하기는 싫으니까!
뭐하는 거야? 이 곰벨이같은 놈! 빨리 따라나와!
에! 어머니!
에에! 어머니.
차라리 잘됐어 홀드라마 연출할 생각 없었거든~우리가 언제부터 사이좋게 지녁 먹는 사이라고~
말 조심해! 아버님 앞이다.
앉거라, 일년만의 가족모임이다
에! 할아버지.
웃겨~ 주제에 언니 흉내라도 내겠다는 거야?

그냥 죽어버리던
모두 이득인데,
왜 그리 절기게
살아남는 건지~
겁줄 하나는
끔찍하게 질긴
년이라니까~
잘난 척하는 거
회엔 쓸모없는
그 집착한 거한테
기대한 내가
바보지!
누구…?
내 이모
알아?!

오늘 사고가
이모 짓인
거예요?
뻔하잖아!
그 내숭덩어리가
아니면 한재하
짓일 테니~
어젠 그 노친네가
먼저 부러서
상속조건을 바꾸기란
기도해야겠군
하긴, 그 독종인
노친네가 하나뿐인
친손녀라 해도
검증없이 전부
내어줄 리 없지!
하지만…
내 일부터는
모든 유산의
집행란 전제
그만 포기
하는 게~
닥쳐! 운전하는
사람 정신없게
왜 떠들어?
앞 차!

엄마나 닥쳐!
지금까지 혼자
떠들었잖아!
이 잔소리꾼아!
자 … 잘못
했습니다,
어머니!
여 여기
내려주세요.
압구정에서
친구와 만나
기로 해서
그래?
귀가시간
10시인 거
기억하지?
헉? 그건
방학 때 .
오늘 졸업식
했잖아!
통금 지켜!
하지만 .
지금
9시인데 ..
그냥 저 태워
가세요! 어머니!
저, 택시비도
없다구요
서강현,
인생 처참하다!
맨날 그렇게
당하고 사냐~

다치고 더 발악!
10시까지 안 들어가면
밤새 무릎 꿇고
빌어야 한다구!
이래서 내가 망할이
싫어! 학교 기숙사가
벌써부터 그립다니~
그래~그래~
네가 오는 일국
안 됐으면
어젯밤 뻗었나.
쪽팔려서
남한테는
못 보여줄
꼴이잖아!
키득
유학은 왜
일국한 거야?
촬영일
남았다면서 ··
휘린이 사고
듣고 일본에서
날아온 거야
휘린이
경호원한테
싸지었잖아
멍청한 놈!
계심해한테
절절매는
꼴하라니~
혁이도 같은
말을 하던데?
얼마한테 절절
매는 한심한
마마보이!
키득

씨바~! 어릴 때부터
워낙 놀려삼아서 몸에
밴 걸 어쩌라구~
꼰대도 안 무섭지만
할아버지와 엄마가
소리치면 나도 모르게
굳어버린단 말이야!
어디다 정휘린까지
니네 얼마 흉내내며
우롱했다고 했지~
어지간히 비슷
했나 보다 내가
흉내낼 때는
끄떡도 없더니~
키득
니게 흉내낸 거야?
니릴 때 정휘린은
순간 몸이 마비될
정도로 비슷했다구~
그 정도로
비슷한 사람은
정휘린
뿐이었으니
가만~
헉?

정휘린?!
그래! 그런
느낌을 낼 수
있는 사람은
정휘린
뿐이었어!